사람생각! 소통의 공간! 행동하는 지성!

할말은 한다 12호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 노 재 옥 전화/920-5159

구로병원 2021년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폭언·반말 등 직원존중문화 개선 위한 노사 한마음 모았다!

12월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 회의에 사측 위원으로 신임 병원장인 정희진 대표위원을 비롯해 김진태 경영관리실장 및 안전·보건관리자가 참가했으며, 노동조합은 노재옥 지부장, 정혜란 수석부지부장 및 간부들이 참석했다. 또한 전체 전임자가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함께 배석했다.

사, '직원들을 위한 자리, 좋은 회의 되길 바라'

노, "산안위는 직원 고충을 처리하는 의결기구, 노사 소통을 위해 노력하자."

대표위원 인사말을 통해 사측 대표위원 정희진 병원장은 "병원장이 되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알게됐다."며 "산안위를 통해 노사가 직원들의 건강 복원을 위한 응원을 하는 뜻깊은 자리인 것 같다. 좋은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노재옥 지부장은 "산안위는 병원 내의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고 법에 의해 처리하는 의결기구다. 안건들에 대해서 노사가 대책을 마련하고 의결을 통해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 대표위원께서 병원장 이취임식을 통해 소통을 강조하셨다. 노조도 소통을 강조하는데 양방향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노사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직원안전을 위해 문제 해결, 예방 등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산안위 다운 산안위, 직원 위한 고충 해결은 노사 소통에서 시작된다.

노사는 안건 중 ▲직장 내 폭언 폭행 등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제안 사항인 노사 공동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임신한 직원에 대한 물품 지급 요구에 대해 '배지 및 스티커는 좋은 의견'이라며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다.

산안위의 안건들은 부서에서 불만과 요구가 많은 사안들이다. 이를 바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면 노동조합의 요구에 적극적 검토와 노력 의지야말로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일 것이다. 노사가 산안위를 통해 직원들의 고충을 공감하고 이해한다면 직원 누구나 모두가 행복해하는 직장이 될 것이다.

〈2021년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

안건	노동조합 질의	병원 답변
요청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① 손가락 끼임, 낙하사고등이 있는데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예방조치등을 진행됐는가? ② 물품 적재 낙하사고 있다. 60cm이하, 170cm이상의 높이에는 적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 점검해달라. ③ 감정노동 심리상담실 이용건수가 적다. 이유는 무엇인가?	① 사고가 난 부서에 대해 안정성·위험성 평가를 진행해 사고 재발을 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② 알겠다. ③ 심리상담실을 가기 전 1차로 보건관리자를 만나는데 상담과 비슷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산안위 이행점검 건	【간호사 간편복 병동 확대 건】 ① 간편복을 1년에 2벌 지급 예정이라고 하는데 근무 중 감염, 오염등의 문제 발생시 대책이 있는지? ② 주 1회 세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집으로 가져가서 세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③ 외래 간호사의 경우 근무복 유지인데 고온 세탁 시 문제점이 없는가? ④ 간호부 외 직종의 피복에 대한 세탁 계획은?	① 1~2주 정도 시행해보면 필요수량이 얼마나 될지 파악될 것이다. 오염된 피복은 충분히 교환할 수 있고 여유분을 더 확보하겠다. ② 3개병원 간호부와 상의해보겠다. ③ 업체와 지속적으로 상의하며 신경쓰도록 하겠다. ④ 현장의견을 받아 개선점을 찾겠다.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건	【폭언, 폭행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조치 건】 노조에서 올 3월 실시한 설문에서 최근 1년간 폭언·폭행여부에 대해 상급자 8.4%, 의사 17.9%, 동료 3.1% 총 29.4%를 차지했다. 또한 파업에 참가한 병동간호사들은 폭언, 반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제일 심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1순위로 꼽았다. ① 상호존중 문화 만들기 위한 노사 공동 캠페인을 개최하자. ② 폭력방지대책위원회 설치하자. ③ 녹음이 가능한 사원증을 배포하자.	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전략을 마련해 캠페인을 같이 진행해보자 ② 예방 캠페인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실무단위 협의체를 마련하고 사건이 발생되면 이 기구를 통해 문제를 논의하자. ③ 비용과 개인정보등의 관련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에 관한 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노동자들이 직접,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쉽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다. 현장근무자 중에서 선임하여 노.사 간의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재해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사내 명감을 선임하고자 한다.	기능적인 측면은 안전관리자가 맡아서 하고 있다. 관련 서류를 주면 검토해보겠다.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건	2020년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대해 설명회 개최 요구	3개 병원 안전보건관리자들과 함께 노동조합에 설명회 개최하기로 함.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건	【임산부 마더박스 지급 건】 안암병원은 임산부 보호를 위해 임신한 모든 직원에게 마더박스(임산부스티커 및 신생아용품)를 지급하고 있다. 임산부 직원 및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내부 교직원들과의 상호 배려하는 조직문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구로에서도 마더박스를 지급하도록 하자.	배지와 스티커는 좋은 의견이다. 지원 물품은 현재 지급중인 출산지원금과 중복성 문제가 있으므로 상의가 필요하다.
	【탄력스타킹 지급 개선 TF팀 구성 건】 단체협약 제 75조에 따라 탄력스타킹 연 2켤레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외래 진료 및 진단서를 첨부 하고 있다. 전 직원에게 부여되는 복지임에도 진단서 제출 조건 때문에 외래 진료라는 불필요한 절차가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TFT를 구성하여 대안을 마련하자.	외래 진료 등의 절차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한다. 3개 병원의 보건관리자, 실무자들끼리 논의하여 방법을 찾아보겠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건	【일반건강검진 추가 검사 확대 건】 직원 건강검진시 암지표검사, viral marker를 추가하자.	tumor marker가 조기진단의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다른 검진 항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빠진 것은 없는지 검토해보겠다. 고위험부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할 부분이 빠진 것이 없는지 다시 확인 해보겠다.